

목어

21세기의 불교

탈레스(Thales, BC.624~546)는 이 세계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형성된 것이냐를 묻고 신화적인 설명이 아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져 왔다. 그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물에서 나왔다"고 믿었다. 또 "철학은 놀라움에서 시작된다"는 경구가 있는데, 탈레스는 예전의 넓은 바다에 놀라면서 그의 철학적 체계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을 근원으로 삼은 서양철학은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온갖 공해, 핵무기, 자원고갈... 등 문명의 위기를 몰고 왔다.

한편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연과 인에 따라 변화와 생성을 거듭해 가고 있을 뿐, 근원은 공"이라고 한다. 석가모니는 사문출유(四門出遊)의 설화에서 그의 놀라움의 대상이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한 마음의 아픔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생로병사를 포함하여 모든 변화의 원인이 연기(緣起)에 있음을 파악하고 공의 철학을 내세운 것이다. 회합철학의 출발이 불이며, 물질적인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철학이었다면, 불교는 인간(實存)을 대상으로 삼는 '공'의 철학이며, 그 결과 전혀 다른 철학과 종교가 된 것이다.

모든 근원은 '공'이기에 연기에 의해 무엇이 형성될 수 있다. 온우리를 불국토화시킬 수 있는가 하면, 지옥과 같이 만들 수도 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의 20세기는 식민지, 6·25, 제주도, 거창, 광주 등지에서 저질러진 학살 등 좌절과 비극의 연속이었다. 이 동안 중생은 앓고 있었다. 그러나 불교철학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나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항상 우리 뒤에는 부처의 자비의 빛이 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앞에는 백지와 같이 무엇이나 그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는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새롭게 남북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2000년 8월 15일, 55년만의 한을 씻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산가족의 상봉이 있었다. 그것이 통일과 세계평화를 예고하고 있다. 서양문명의 한계를 응시하면서 모두가 함께 백지에 불상이 넘치는 21세기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지원차원서 불교문화 교류로 확대

주요종단 대북사업 자분한 발걸음

'화해시대 불교 역할' 세미나

1종도 1구좌 통일기금 조성
영통사 복원 지원 '신중' 검토
복지시설·건립·컴퓨터 등 지원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남측 종교대표 방북과 내금강 사찰 복원 등 굵직한 현안이 잇따라 터져 오자 불교계는 차분한 가운데서도 북한행 발걸음을 쟁기고 있다. 종교계 대표의 방북으로 북한종교계와의 교류가 이전의 식량·의복 지원 교류와는 달리 광범위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국을 통한 중개인 교류에서 직접적인 인적 교류도 활발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불교계는 특히 사찰 복원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협력의 시대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단과 단체간의 지나친 경쟁을 우려하며 종단협의회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어나가는 대북불교교류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인연이 깊거나 이미 사업에 착수한 종단이나 단체가 주관이 되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조계종 지난 6월 구성된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대북교류 사업이 구상되고 있다. 내금강 내 사찰 복원에 대해서는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방북해 북한당국과의 협의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9, 10월 중 북한의 문화재 현황 조사를 착수하므로 북한 대상 사찰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려면 빨라야 내년 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계사 복원과 관련, 의금강 개발권을 가진 현대아산과 협의중이며, 합의서를 작성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르면 연내에 신계사 복원 불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화해시대의 불교 역할'을 주제로 10월부터 매월 한 차례 세미나를 열며, 31번째로 당시 북한에 위치한 8개 본사에 대한 조사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착수하며, 필요한 경우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에도 자료 협조를 요청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 합동법회
모향신보연서 주체 88(서기 2543)년 9월 22일

○지난 해 9월 방북한 진각종 대표단이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 북한주민들과 함께 합동법회를 봉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불자통일교육 교재도 발간해 배포한다.

특히 조계종은 내년도 예산편성시점을 마련하면서 불교회관·중앙승가대 이전과 함께 통일기금 조성을 종단목적으로 정해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태고종 태고종은 17~19일 선암사에서 원로 및 중진, 전국 시도교구 총무원 간부 스님 등 130명이 동참한 가운데 통일불교정책을 주제로 한 연찬회를 개최, 1종도 1구좌 갖기 등 전 종도들의 동참속에 통일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남북교류의 가속화에 발맞추어 태고종이 북한교류 사업을 △남북불교문화 교류 △북한종교 지원 △북한불교연구 △북한포교기금 조성 등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구체적인 작업의 일환이다.

지난 7월 '통일불교정책추진위원회'를 설치, 종단 중앙전문위원회로 창구를 일원화해 통일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 태고종은 추진위 내에 북한연구를 담당하는 부서까지 들 계획이다.

이미 지난 6월 태고종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평화통일기원 영산재 봉행을 남북합동으로 추진하고자 제의했으며 북한에서 요청할 시 불화와 단정기술, 전통 송가사, 전통사찰 복원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불교연구사업은 분류를 겪지 않은 북한불교계의 의식과 의제가 태고종과 같고 종조 역시 태고부우국사를 모시고 있는 만큼 한국 불교의 전통과 전통 법맥에 대한 연구를 북한불교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천태종의 개창조인 대각사 의천스님의 열반지 개성 영통사를 발굴하고 있는 북한은 영통사의 복원에 한국 천태종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천태종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면서 종교 대표 방북단에 포함된 총무원장 윤덕스님 방북 때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개성을 관광·공업도시로 개발하는 만큼 신도들의 의천스님의 출가·열반사찰인 영통사에 대한 참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한 교류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윤덕스님은 24일 "이달말 총무원장 스님들 종단 간부스님들의 유엔행사 참석후 종단내에서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월경 대북교류 창구 역할을 할 종단산하 기구설치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7대 종교 지도자의 방북과 별도로 진각종은 일정 교육원장 등 종단핵심 간부들의 방북을 내달 중에 추진한다. 지난해 성초통리원장이 종단수반으로는 최초로 공식 방북하여 북한불교계의 정중함을 받는 등 상당한 신뢰를 쌓았다고 평가한 진각종은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번 방북에서 북한불교계와의 유대를 한층 돈독히 하겠다는 것.

또 유치원 등 복지시설 건립과 컴퓨터교실 개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에 대한 논의와 본격적인 문화개방에 따른 포교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종단내 북한전담부서인 국제불교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합동 통일 세미나도 연내에 성사시켜 민족화합과 통일에 대한 남북불자들의 의지를 북돋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경숙·정성운 기자 (gslee@buddhapia.com)

서산대사 선시 조선 시문학의 백미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21 선시 읽기(3)



김형중

명성여고 교장사
문학박사

한시의 대가들의 공통점은 유불선 삼교에 통달한 사람이다. 시서화(詩書畵) 삼절(三絶)이었다. 그리고 선시의 특성인 상징과 함축, 뜻이 말 밖에 있는 언의미(言外之味) 그리고 묘오(妙悟)의 시를 한결같이 구사하였다. 왕유의 그림같은 시인 '시화일치론'과 소동파의 시 속의 깊은 깨달음을 담은 철리시는 선시론이라 할 수 있는 시선일여와 선가에서 추구하는 자연의 '색성오도론(色聲五道論)'을 추구하였다.

서산대사 휴정은 삼교에 통달한 사상가로서, 십 세에 시를 지은 천부적인 시인으로서 한국 선시를 완성한 선시의 대가이다. 그의 시집 <청허당

집>에는 당송시대 대가들의 시를 수용 발전시켜 당시 시호들의 시를 능가하는 훌륭한 시를 창작하였다. 당시 문병(文柄)을 권 허균을 비롯한 한 대가들이 한결같이 그의 시를 찬양하였다.

홍만종(洪滿宗; 1643~1725)은 조선 한시의 비평에 있어 가장 엄정하고 공평한 시평을 한 <소화시평>에서 서산대사의 '상추(賞秋, 가을의 노래)'란 시를 소개하면서 "뜻이 오묘하고 호젓한 정취를 나타내고 있다. 스님이 재주가 많다는 말이 어찌 참말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조선 한시의 통시적인 총체적인 시선집 경 비평서라 할 수 있는 그의 저술 속에서 분명하게 서산대사 선시의 문학성과 한시론 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밝히고 있다. '상추'를 감상해 보자.

遠近秋光一樣奇 閑行長晷夕陽時 滿山紅綠皆精彩 流水啼禽亦說詩

가을의 풍광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하나같이 기이하니 / 석양에 휘파람 불며 한가롭게 걷네 / 온 산에 붉고 푸른 아름다운 빛깔과 / 흐르는 물, 새들의 울음소리 그대로 시를 설하고 있다.

7언절구인 이 시는 '원(遠)과 근(根)', '일(一)과 다(多)', '만산(滿山)과 유수(流水)', '빛[光]과 소리[響]가 대구를 이루고, '기(奇, 시(時), 시(詩)의 운으로 정확히 압운(押韻)한 가을의 경치를 묘사한 시의 내용이나 시의 격조를 갖춘 형식에서 모두 훌륭하다. 전체적으로 소리와 색 같이 조화를 이루고 시의 품격인 한적(閑寂)을 나타내면서도 산수 자연 그대로가 선의 세계로, 시의 세계임을 엿들은 선시론이라 할 수 있다.

소동파는 시냇물 소리[溪聲]와 산빛[山色]을 부처님의 설법(佛說)이요, 진리의 법신(法身)이라 읊었는데, 서산대사는

다. '탐일봉'을 살펴보자.
千山木落後 四海月明時 蒼蒼天一色 安得辨華夷
산마다 나뭇잎 떨어지니 / 온 세상 일시에 달이 밝네 / 푸르고 푸른 하늘은 한 빛인데 / 어찌 중화(中華)니 오랑캐니 구분한다 말인가.
'탐일봉'은 서산대사의 '화이일색론'을 읊고 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일체중생개유불(一切衆生皆有佛)과 '중생이 부처다(衆生即佛)를 시화한 것이다. 진여의 세계, 공(空)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불이(不二)의 세계임을 읊은 절리시이다.
'통결'에서 "누라서 이백과 두보 후에 종월(諒)과 친한 이가 없다고 했다. 천지에 지극한 공물(公物)인데 어찌 한두 사람이 차지하리요(誰言李杜後 風月無相親 天地至公物 豈私一人)"라고 읊은 '통결공물론'은 홍세태의 '천기론'과 일치한 사상이다.
서산대사가 조선 후기 선시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에 제제자를 비롯한 선사들의 시문집이 78종에 이른 다. 그들은 서산대사의 선시의 맥을 이어 선수행에서 얻은 깨달음의 경지를 시 속에 담아낸 시승들이다. 그의 선시는 조선말기 시승 초의(草衣)선사, 만해선사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위원 : 고은
인쇄인 :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20명 ■야간20명 ■통신50명	·고등학교 및 수능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면합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5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야간10명		
중국언어과	2년			·30세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2. 학원연혁

1989.7.3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취득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취득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1992.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취득
1994.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본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2000.2 제9회 졸업생 배출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과정 입학가능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 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9월 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은 당일 소인 유료)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교학과: TEL.(02)511-2026 ~ 8 FAX. 511-1080
일본동경분교: TEL.055-233-184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WWW.Buddhapia.Com
☎135-8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학 원 삼 화 불 교 대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교육부 학력 인정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9월 8일까지
- 문의처: ☎135-8887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 511-2026~8 FAX: (02) 511-1080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학 원 삼 화 불 교 대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중국최고 국립한의과 대학

1. 모집학과

· 석사·박사과정 약간명 모집

학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전문대, 대학 졸업(재전공불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건강 진단서 1통 · 모종서 1통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3매
중의외과	5년	
중약학과	5년	

2. 학교 소개

-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등 원비
- ▶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 군입대 연기가능
- 주소: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25-6798171 팩스: 25-6798168
-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02-511-2026~8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학 원 삼 화 불 교 대